"'코리아세일페스타' 영암몰도 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최대 45% 할인행사 진행

오늘 인터파크와 손잡고 라이브커머스도

영암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여 영암 농특산물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2주간 개최된다.

이에 맞춰 영암군 온라인쇼핑몰인 기찬들 영암몰에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최대 45%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모든 상품 20% 할인쿠폰, 신규가입자 15% 추가 할인쿠폰, 매일 출석체크 10%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출석체크 이벤트, 댓글 이벤트, 포토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인터파크와 손잡고 인터파크TV 영암군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11월 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꿀밤 고구마, 쌀 등 영암군의 농특산물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인기 개그우먼 안소미가 쇼호스트로 출현, 직접 영암군의 농특산물을 소개하여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파크TV 영암군편의 주요상품으로는 영암군농협쌀조합 햅쌀모음, 영암매력한우 알뜰세트, 담아김의준 꿀밤고구마 등 영암 우수농특산물이 홍보·판매된다. 해당 상품들은 라이브커머스가 종료된 후에도 인터파크 '팔도보부상'프로모션으로 11월 15일까지 판매된다.

11월 18일에는 2021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영암 농특산물 품평·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3일까지 품평박람회에 참가할 관내 농수축산·식품 생산 농가, 가공식품 업체 등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품평박람회에서는 대형 유통 계열사 MD들을 초대해 영암군의 농특산물의 디자인, 마케팅 코치 및 국내외 유통채널로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특산물을 판매한 농가에 대해 건당 2,500원의 택배비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영암군이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판로개척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우수한 영암의 농특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현장 점검·격려

한옥형 누각 설치 북문재 주변 경관 개선·대표 상징물 자리매김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0월28일,'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경관정비사업은 영광읍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한옥형 누각을 설치하여 북문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영광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현장 점검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가시설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인근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현재 하부 성벽구조물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한옥형 솟을삼문, 팔작지붕 형식의 누각구조물을 건축하고 내년 4월 준공예정이다. 북문재 현판 문안은 주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을 11월 중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청 관계자는 북문재 경관정비사업 추진으로"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음에도 차량통제에 협조하여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사업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목포시가 지난 10월28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담당 공무원,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커져가는 노인일자리 수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자리 참여자 및 수행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종식 시장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목포시도 어르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건강과 일자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수령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신안군에서 개최

신안군은 입추를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무채색의 갯벌이 울긋불긋한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10월 27일, 신안군 청사 내 잔디광장에서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남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전북 고창갯벌, 충남 서천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신안군, 세계유산추진단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화재청장, 청와대 문화비서관, 참여지방단체장, 외교부 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주한외교관(6개국)들이 참석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해 주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발걸음을 맞춰온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신안군, 순천시, 보성군, 고창군, 서천군이 세계유산등재 인증서를 수령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갯벌 유산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여 갯벌과 자연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함평군, '고품질 양파 생산' 정식기 관리 당부

10월 하순~11월 상순 적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양파 정식 작업이 한창인 지금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해 적기 정식과 병해충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10월29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양파의 정식 적기는 평균기온이 15℃인 때로, 함평군의 경우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이 적기이다.

양파는 심는 시기가 늦어지면 월동 중 동해 및 서릿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기에 정식을 하지 못하면 수확량이 크게 떨어 질 수 있다.

또한, 양파 생산량에 큰 피해를 주는 노균병은 육묘상에서부터 방제가 필요하다. 일교차가 큰 지금 1차 방제를 확실히 해야 2차 노균병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식 후 7일 간격으로 2회 예방적 방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양파는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만큼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주민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11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지역주민 200명 대상 실시

무안군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각 마을이장 등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9개 읍면과 남악지역을 순회하며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마네킹을 이용한 현장감 있는 실습위주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심정지의 경우 뇌는 혈액공급이 4분만 중단돼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데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최초 목격자가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과 예후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 모두가 응급상황에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